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음 5월 1일) 제181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 ITF 시범단 참가 확정

태권도로 남북교류 물꼬 텃다

개·폐막식에서 선보이기로

단일종목 사상 역대 최다국가가 참여하는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개·폐막식 행사에 북한 ITF 시범단이 참가해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지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20년 만에 전북에서 치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대회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무주 국립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개원 3년차인 태권도원을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00만 태권도인의 성지 이미지 구축과 태권도가 글로벌 스포츠로서 2024년 올림픽 핵심 종목 선정 뿐만 아니라 올림픽 종목 영구화를 위해 최다규모, 최대성공의 대회로 치루겠다고 이종석 조직위 사무총장은 밝혔다.

조직위원회에서는 태권도 종주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역대 최다국가 최다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로 치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위는 태권도원을 성지로 인식시키고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태권도 기반 취약국가 57개국을 초청해 대회 참가는 물론 태권도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는 6월 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1차 등록기한인 24일까지 163개국이 참가를 신청해 2년 전인 당시 역대 최다국가가 참여한 2015 러시아 대회의 139개국을 훌쩍 뛰어넘어 조직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170개국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회는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



성평등 문화가 정착되도록

25일 전북여성문화센터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전북여성문화센터장 및 도·시·군 여성단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조성 및 도민의 젠더의식 재정립을 위한 제6회 젠더문화축제행사를 가졌다.

호는 물론 위자이칭 IOC 부위원장 및 IOC위원 10여명, 주한 각국 대사 20~3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돼 태권도 종목뿐만이 아닌 국제 스포츠 리더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국제 스포츠계 유명인사들의 대거 내한으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한류 문화를 알리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소와 친절로 품격있는 대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최종 7개분야 551명을 선발해 기본 및 소양교육을 완료했으며, 오는 27~28일에는 무주리조트에서 대

회 조직위원장인 송하진 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과 현장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조직위는 무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전국적 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시도간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7개 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가 참석하는 '제 23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와 전국 시도의회장 협의회에서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전국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외에도 조직위는 관광공사와 연계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태권도를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해외

태권도 지도자와 태권도원을 방문한 사범단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 개·폐막식 공연에 북한 ITF 시범단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돼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중단됐던 남북 태권도 교류 프로그램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재가동된다.

WTF와 ITF의 교류차원에서 방문하는 형식이지만 남북교류의 의미가 매우 크고 일각에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냉랭했던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지원 단가 단계적 인상도

교육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 지방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5일 "누리과정이 지난 몇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돼 직접적 피해를 학부모들이 겪고 일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

었다"며 "그래서 저희들이 누리과정 국가책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야당 시절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참여하게 대립했던 사안이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국회 심의, 의

결과정에서 당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8600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41.2%에 해당하는 것이다.

올해 기재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 편입하면 내년부터 보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24일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한발 더 나가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이날 보고에 포함했다. 현재 지원단가인 1인당 월 22만원을 단계별로 2020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와함께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현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원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안재용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社告

제11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일시: 5월 28일(일) 오후 4시

장소: 전주 종남문 문화광장(남부시장 입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전주매일신문사가 공동으로 '제11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
- ▲주관: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시지소
- ▲후원: 전북도, 전주시, 각 언론사, 전북장애인신문사
- ▲예선일시 및 장소: 5월 27일(토) 오전 10시, 인권상담소 회의실 ☎ 286-6678
- ▲문의: 063-286-6678, 285-6676, FAX) 287-6676

전주매일

메르스 등 국가재난 질병 정복

전북대, 3개 연구팀 구성 응용유전공학 기술 개발 나서

2년 전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는 국가적 재난으로 번지며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이를 예방할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공포감을 더 키웠고, 예방 백신을 비롯한 치료제 개발은 전 세계의 과제로 남았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메르스 등 국가 재난형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 사업에 뛰어 들었다. 김대혁 교수팀(분자생물학과)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을 통해 연구팀은 정부로부터 50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 '국가 재난형 질병 제어'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활용 연구'를 수행한다.

전북대 연구팀은 이 연구를 통해 맞춤형 유전공학 기반 기술을 통해 국가 재난형 질병 제어 기술의 세계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세계 수준의 국가 재난형 질병 제어 연구센터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센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자생물학과와 화학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연구진들이 함께 참여해 3개 연구팀을 구성, 질

병제어를 위한 응용 유전공학 기술 개발 및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1연구팀은 진핵미생물 기반 항원 단백질 발현 및 효과적 전달 기술을 개발, 선진 제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

제2연구팀은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재조합 단백질 개발로 의학 및 수의학 관련 중요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3연구팀은 전파력이 매우 빠르며 급성질환을 야기하는 메르스 치료제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치료제 시장 선점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천연 농산물 기반형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중심의 약학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대에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해은 기자

본사인사

▲김진성
명: 정치부 부국장

(5월 26일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